

#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 전주에 온다

비보이그랑프리대회, 28일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개최

지난해 우승팀 M.B CREW 올 예선 통과 7개팀 격돌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문화의 도시 전주에 몰려온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내·외 최고 비보이들의 한바탕 축제인 '제11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가 오는 28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열린다.

국내와 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30여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후 1시 비공개 예선을 시작으로 오후 6시 개막식을 갖고 화려한 배틀을 선보인다.

본선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M.B CREW와 예선을 통과한 7개 팀이 우승상금을 놓고 격돌한다. 수상자에게는 영광의 우승상패와 함께 1등 1000만원, 준우승 400만원, 3등 2등에는 각 200만원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의 위켓과 러시아의 알코릴, 라스트포원의 신영석씨 등 세계 유명 비보이 출신 3명이 심판을 맡아 진행하며, 비보이대회 전문 MC인 우정훈, 박재민이 공동사회를 맡는다.

이와 함께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도 마련됐다.

이날 오프닝 공연에는 지난 2008년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UK BBOY CHAMPIONSHIP' 대회 랭킹 댄스 부문에서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LOCK N' LOL CREW'가 참여한다.

또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인 '바디락 2016'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저스트 쥘'과 힙합가수 사이먼 도미닉이 참가해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찾은 관객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내 최고 비보이들의 한바탕 축제인 '제11회 전주비보이 그랑프리대회'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과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정경주 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관에서 열린다.

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야외마당에서는 행사 11주년 기념 그래피티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체험의 기회도 준비했다.

본 대회에 앞서 시는 오는 20일 중앙삼림광장에서 '울창로 합합믹스배틀대회'가, 27일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비보이 워크샵', '비보이 배틀대회'를 준비했다.

대회장 입장은 배부처에서 받은 좌석교 환권을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매표소에서 지정좌석권으로 교환하면 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선착순 1700명만 입장할 수 있다.

대회 공동위원장인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비보이그랑프리는 지난 10년 간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비보이 대회이자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 젊고 뜨거운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로 자

리있었다"며 "도시 전체에 젊음의 기운을 불어넣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전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첫선을 보인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유일의 팀 배틀 형식의 전국비보이배틀대회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근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전시·공연·이벤트 공개

초록빛 산골 속 소란스럽지 않은 복합 문화 예술의 장,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전시와 공연 및 이벤트를 공개하며, 기존의 부대행사 취지를 살리되 한층 업그레이드된 볼거리로 관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거의 극장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한 전시 <극장전>은 과거 무주의 유일한 문화 시설이었던 '무주 문화극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올해의 상영작 네 편(<미술관 옆 동물원>, <다이나소어 어드벤처: 백악기 공룡대백과>, <벨빌의 세 쌍둥이>, <라라랜드>)으로 꾸며질 아와 포토존 <극장 간판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해가 저물 무렵,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지는 전북도립국악원의 <2017 여름을 여는 '국악 콘서트, 락'의 무대를 비롯하여 <어울림 콘서트>의 다양한 초대가수들과, 에너지 가득한 밴드 남버원코리아와 김스턴 루디스카의 무대가 남녀노소 어깨를 들먹이게 만들 예정이다. 무성영화 <카메라맨> 라이브 연주를 맡은 신나는 섬과 영화 <스티라이트>의 연주를 위해 밴드 와이낫의 보컬 전상규를 중심으로 꾸려진 프로젝트 밴드 콘 브리오의 무대는 노니파이, 뮤즈그레인과 함께 숲 속 극장인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에서 영화 상영 전 진행된다.

이와 함께, 무주 등나무문동장에서는 작년에 이어 관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선사할 핸드메이드 장터 산골공방, 초록빛 잔디 위에서 휴식을 즐기는 꿈꾸는 산골 도서관 등이 상시 운영된다. 그리고 안성면 두문마을에서는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한국전통꽃놀이인 낙화놀이, 무주를 서면 마을에서는 청정 자연의 무주를 대표하는 콘텐츠 반딧불이 신비탐사 프로그램이 영화 상영과 함께 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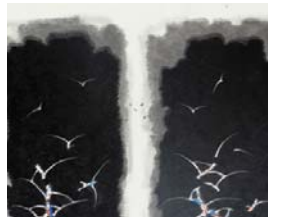
한편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군 일대에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 ▶▶ 공연 & 전시 ◀◀

### 누벨백 미술관서 전북대 이철량 명예교수 회고전

누벨백 미술관에서는 전북대 이철량 명예교수의 '우리 시대의 먹그림, 이철량'전이 오는 25까지 열린다. 오프닝은 12일 오후 5시.



이번 전시는 이 교수의 정년퇴임전을 겸해 여는 수묵화 30년 회고전이다.

1985년 작 숲부터 2017년 작 CITY까지 총 12점으로 구성된 전시는 그의 작품세계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철량 교수는 1980년대 한국미술 역사상 최초로 일었던 수묵화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줄곧 수묵작업을 지속함으로써 청년세대들이 수묵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일조했다.

이 교수는 작업 초기엔 산수나 자연을 소재로 삼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는 신시(神市)라는 주제로 작업을 이어왔다. 신시는 '성스러운 도시' 즉 모든 생명체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원초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는 인간과 자연과의 일체화를 통해 생명에 대한 세계관을 일관되게 표현해 왔다.

/정해은 기자



안준영 관장

## 완판본문화관, 출판문화 거점지로

### 한글고전소설 복원·전시관 내부 전시 새로 구성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이 출판문화의 거점지로 거듭난다.

'새김의 가치를 되새기다'라는 목표와 비전에 발맞춰 전시관과 교육관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열린 문화 공간으로 도약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을 연차적으로 복원하고 전시, 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완판본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한다.

문화관은 한글의 보급과 출판물의 유통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한글고전소설 '심청전' '춘향전' 등을 연차적으로 복원한다. 이는 완판본 중 한글고전소설 책판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 기록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복원진행은 판각강좌를 통해 배출된 회원들과 함께 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고 출판했던 완판본의 가치를 지역민들과 공유한다.

이와 함께 매년 한글날을 기점으로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복원 기념식을 개최, 완판본이 가지는 출판문화사의 의미를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의 우수한 출판문화를 감상하고 완판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관 내부의 상설전시실 '완판본 제작과정 이야기 전'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전라감영에서 출판한 사서삼경·생략백과음 도서·의서 등의 서책과 완판본을 대 표하는 한글고전소설의 전시와 함께 판각부터 인쇄, 제작에 걸친 완판본의 전반적인 제작과정을 선보인다.

체험 및 교육의 경우, 문화관은 목판에 글자와 그림을 직접 새기는 전통판각시연을 매주 토요일마다 전시실내에서 시행한다. 이러한 시연을 통해 기록문화의 핵심 기술 보유자인 각수와 관람객과의 소통을 꾀함은 물론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완판본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양성된 판각전문 인력(판각강좌회원)이 진행하는 교육·체험·연수·문화행사를 통해 기록문화의 소중함을 나눈다.

안준영 관장은 "제작과정 전시, 전통판각시연, 전문교육을 통해 완판본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관객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며 "완판본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는데 그치지 않고, 완판본이 가진 문화적 자산과 콘텐츠가 새로운 문화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ECO융합섬유연구원

#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시제품 생산

기술, 정보제공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업지원

지식재산권

연구용역 수행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b>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b>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첨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b>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b>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b>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b>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신청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